

# 전남 GAP농가 첫 1만가구 돌파

〈농산물우수관리〉

### 전년보다 1874가구 증가한 1만1150가구...3년 연속 오름세 전남 인증 면적 2498ha 증가...광주 27가구 감소·면적은 확대

지난해 전남지역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가 처음 1만 가구를 넘겼다. GAP 인증 농가는 전남에서 매년 오름세로, 지난해 증가율은 전국 5위를 차지했다.

지난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GAP 인증 농가는 1만 1150가구로, 전년(9676가구)보다 1874가구(19.4%) 증가했다.

전남 GAP 농가는 지난 2018년 7192가구, 2019년 9676가구에 이어 지난해 처음 1만 가구를 넘겼다. 이와 더불어 GAP 인증 건수도 971건(2018년)→1088건(2019년)→1281건(2020년) 등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GAP 인증 농가는 11만4264가구로, 전년(9만9050가구)보다 1만5214가구(15.4%) 증가했다.

인증농가 증가율로 보면 부산(59.1%), 서울(44.1%), 경북(20.7%), 경기(19.9%)에 이어 전남이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다.

반면 광주 GAP 인증농가는 4.7% 감소하며, 울

산(-2.8%), 강원(-0.5%)과 함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광주 인증농가는 554가구로, 전년(581가구)보다 27가구(-4.7%) 줄었다. 하지만 GAP 인증면적은 289ha에서 297ha로, 8ha 가량 확대됐다.

전남 GAP 인증면적은 7228ha(2018년)→9918ha(2019년)→1만2416ha(2020년) 등으로, 1년 새 2498ha 증가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이 농산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인증제도는 지난 2003년 국내 약용작물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한 뒤 2006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다. 이달 현재 전 세계 130개 국가 넘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GAP 인증농가가 2006년 3659호에서 지난 연말 11만4264호(12만7000ha)로 확

**?** GAP  
토양·용수 등 재배 환경과 종자·비료 등 농업자재, 선별·포장 등 작업과정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대됐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수확 후 관리 시설도 89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전국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총 63개 기관 가운데 전남지역이 11개로 13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남 11개 인증기관 가운데 5곳은 친환경 인증을 함께 받았다. 광주 5개 GAP 인증기관도 친환경 인증을 병행했다.

한편 농관원이 선정한 '2020년 GAP 생산 및 유통관리 우수사례'에는 신안자은청푸름식품 등 12건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신안자은청푸름식품은 지역 특산물인 양파의 GAP인증을 통해 생산관리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이 업체의 매출은 지난 2017년 43억원에서 2년 새 70억원으로 62.8%(27억원) 증가했다.

농관원은 GAP 인증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논·밭두렁에서 고춧대 태우지 마세요”



강형구(맨 오른쪽) 농협 광주본부장이 지난 29일 임곡농협(조합장 기재만·맨 왼쪽)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폐기물을 논·밭두렁에서 태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3월말까지 미세먼지 저감운동 농협 광주본부, 홍보 캠페인

“고춧대, 짚단 태워도 미세먼지 나와요.”  
농협 광주지역본부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영농인 대상 ‘농촌 미세먼지 저감운동’을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영농폐기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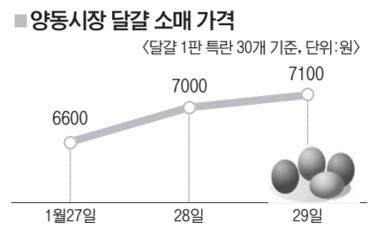
고춧대, 짚단 등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도 꼽히고 있다.

농협은 정부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농촌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있다”며 “농업인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공급량 늘렸는데도 달걀 가격 ‘고공행진’

양동시장 1판 가격 7100원



정부가 미국산 흰 달걀 판매 계획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소매가격은 사흘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린 달걀 1판(특란 30개) 가격은 7100원으로, 1년 전(4200원)보다 무려 69.0%(2900원) 올랐다. 일주일 전(6600원)에 비해서도 7.6%(500원) 오른 가격이다.

aT가 조사한 양동시장 달걀 소매가는 6600원(27일)→7000원(28일)→7100원(29일) 등 사흘째 올랐다.

광주 대형마트 달걀 1판 가격도 이날 기준 A업체 7990원, B업체 7480원으로, 이를 전보다 각각 1000원(14.3%), 1500원(25.1%) 상승했다.

대형마트들은 1인당 구매 수량을 1판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정 당국은 미국산 수입 신선란을 추가로 들어

며 업체 대상으로 공급량 늘리기에 나섰다.

aT는 지난 29일 제과·제빵업체 등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산 수입 신선란 19t을 추가 판매했다. 가격은 한 판(30개) 4450원이었다.

aT는 앞서 미국산 달걀 60t을 공매 입찰 판매했다.

aT 관계자는 “향후 여러 차례 수급안정에 필요한 물량을 도입해 필요한 업체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신세계, 전남 22개 시·군 우수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31일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들이 본관 1층 광장에 마련된 '전남도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상생장터'에서 나주 한라봉 선물세트를 구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창평한과 등 3대 명인전 로컬 기프트 41개 품목 등

㈜광주신세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7일까지 열흘 동안 본관 1층 광장에서 '전남도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상생장터'를 연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상생장터에는 전남 22개 시·군 2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담양 유영군 명인의 창평한과, 박규안 명인 떡갈비, 함평 임화자 명인 한우육포 등 3대 명인 기프트 23개 품목이 있다.

영광 법성포 꿀비, 완도 재래돌김, 나주 천혜향, 거문도 진속 송편 등 '로컬 기프트' 41개 품목, 단품 166개도 매대를 채운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5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하면서 지역 상품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확대해 마련했다. 지난해 설에 비해서는 3배

늘린 물량이다.  
광주신세계는 개점 초기부터 '현지 바이어' 제도를 통해 신선식품 대부분의 상품들을 지역제품들로 준비해 왔다.

강진, 장흥, 해남 지역의 우수 한우 제품은 산지 알뜰 3호(12만원), 산지 알뜰 4호(17만원) 등이 있다. 영광에서 가공한 법성포 참굴비 프리미엄 2호(20만원), 법성포 참굴비 6호(20만원) 등 지역 제품들을 선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

### 광주축협, 대의원회 개최...박병수 상임이사 연임

당기순이익 53억8000만원

광주축협농협은 지난 29일 광산구 신촌동 본점 대의원실에서 정기 대의원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킨 가운데 임직원과 대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상임이사 선거에서는 박병수 현 상임이사가 단독 추천돼 연임하게 됐다.

광주축협은 지난해 1조5700억원 사업 실적 가운데 당기순이익 53억8000만원을 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출자배당 3.9%(6억6000만원), 우선 출자배당 4.1%(7억3000만원), 이윤고 배당 11억 원을 각각 배당하기로 했다. 법정적립금은 9억 9000만원, 사업준비금 13억2000만원, 차기이월금으로 16억6000만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